이 보도자료는 2019. 7. 4.(목) 12:00[2019. 7. 5.(금)자 조간용]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서울중앙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 제4차장검사 이노공

전화 02-530-4305

보 도 자 료

2019. 07. 04.(목)

문의 : 강력부
전화: 02-530-4320
주책임자: 부장검사 김태권

제 목

'인터넷 사설선물', 투자가 아니라 도박!

- 1,800억 원대 불법 선물사이트 운영진 등 구속기소 -

▣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인터넷 1인방송 BJ(Broadcasting Jockey)들을 통해 "수십만 원으로 손쉽게 선물거래할 수 있다"며 투자자를 유인하여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1,800억 원대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 한 **사설선물사이트 운영조직을 적발, 9명을 인지하고 그 중 국내 영업을 총괄한 주범, 중국콜센터 직원, BJ 등 6명을 구속기소하였음**

※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로 가상선물거래를 하게 한 행위는 한국거래소 허가 없이 '사설'금융시장 개설(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) 및 '투자자들에게 도박을 하게 한' 인터넷 도박장 운영(도박공간개설)에 해당함

※ 사설선물사이트 운영은 통상의 도박사이트와 달리 투자자들로부터 거래수수료까지 받아 운영진은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임

▣ 이들 조직은 **'15. 9.경 ~ '19. 6.경**까지 ▲서버와 주사무실을 중국에 두고, ▲중국콜센터 총괄 / 국내 영업 총괄 / 대포통장 공급 담당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, ▲증권전문가인 BJ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해당 사설선물사이트 거래를 추천토록 하여, **투자자들의 거래수수료 및 투자손실액을 취득, 이익을 분배하여 옴**

-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사이트 이름을 변경하는 등 단속을 피하여 왔으나, 검찰은 IP 및 계좌추적, 모바일분석 등 디지털수사기법으로 범행의 전모를 규명함

▣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국내 영업주범이 보유한 차명 아파트 13채 등을 추징보전하고, 국세청에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고발의뢰 조치하였음

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

- A(43세) : 국내 영업 총괄, 불법 사설선물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
- B(47세) : 국내 영업 담당, D의 오빠
- C(47세), D(여, 46세) : BJ, 회원유치 담당
- E(25세), F(여, 28세) : 중국 콜센터 직원

- 공소사실(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)

- **피고인들은** 공모하여, '15. 9. ~ '19. 6. **한국거래소의 허가 없이, BJ들을 통해 투자회원들을 모집**한 후 자체제작한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실제로 거래가 체결되는 사실이 없이 **프로그램 내에서만 작동하는 가상거래**를 하게하며 거래당 수수료를 받고,

  '실제 시장의 선물지수'를 기준으로 거래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정하되 **투자회원들의 손실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고인들이 이익으로 가져가는 방법**으로 총 1,854억 원 규모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운영

※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는 별첨 1 참조, 나머지 입건된 피의자 3명 중 2명은 해외도피하여 인터폴에 적색수배의뢰하였고, 1명은 계속 수사중

2 주요 수사경과

- '18. 4. 사설 선물사이트 이용자 진정서 제출
- '18. 4.~'19. 3. IP 및 계좌추적, 통신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 분석
- '19. 4. 15. A, B, C 구속기소
- '19. 4. A의 특가법위반(조세)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<u>국세청 고발의뢰(추정 포탈액 118억 원)</u>
- '19. 5. 31. D 구속기소
- '19. 6. 해외도피한 피의자 2명에 대하여 적색수배 의뢰
- '19. 6. 20. E, F 구속기소

3 수사결과 및 조치사항

- **기업화된 사설선물 조직 실태 확인 및 전모 규명**

- 지분권자 3명이 '중국 콜센터 총괄 / 국내 영업 총괄 / 대포통장 등 공급 담당' 역할을 분담하고, 그 이하 『이사, 실장, 부장, 차장, 과장, 대리』 등이 직급별 역할을 수행하는 등 기업화된 사실 확인

-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사이트 이름을 변경하는 등 단속을 피하여 왔으나 디지털수사기법으로 조직의 전모 규명

※ 사설 선물사이트 조직도는 별첨 2 참조

- **BJ(리딩전문가)의 적극 개입, 거래 조장사실 확인**

- BJ들은 자신의 회원들에게 인터넷 방송,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카페 등을 통하여 해당 사이트 거래를 추천하고, 그 수수료 수익 중 25~50%를 '리딩비용(종목추천 수수료)' 명목으로 수수

※ 이 사건의 경우 BJ들이 수수료로 1억 3천만 원 ~ 5억 1천만 원을 취함

- 운영자들은 수익금의 절반까지 지급하며 리딩전문가들에게 전적으로 의존, **BJ들이 불법 선물거래를 적극 조장**

- **불법선물거래사이트 운영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**

- 치밀한 재산추적으로 국내 영업주범 A가 보유한 아파트 13채(11채는 차명), 토지 14필지(거제 및 통영)를 확인하여 추징보전 조치함

※ 국내영업주범 A는 약 15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함

- 콜센터 근무 후 귀국한 현금전달책 E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1,205만 원 및 범죄수익금으로 마련한 전세보증금 9천만 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조치함

☞ **범죄수익환수부와 협업하여 공범 전원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**

● ‘조세포탈’ 적용, 사이트 차단 등

- 죄에 상응하는 처벌, 범죄수익의 실질적 박탈을 위하여 중형 및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한 조세포탈로 의율할 필요

☞ **국내 영업주범 A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 의뢰 조치 필**

※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’17. 下부터 ‘인터넷 도박조직’을 조세포탈 범죄로 추가 의율, 중한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하여 범죄동기가 되는 수익 박탈에 노력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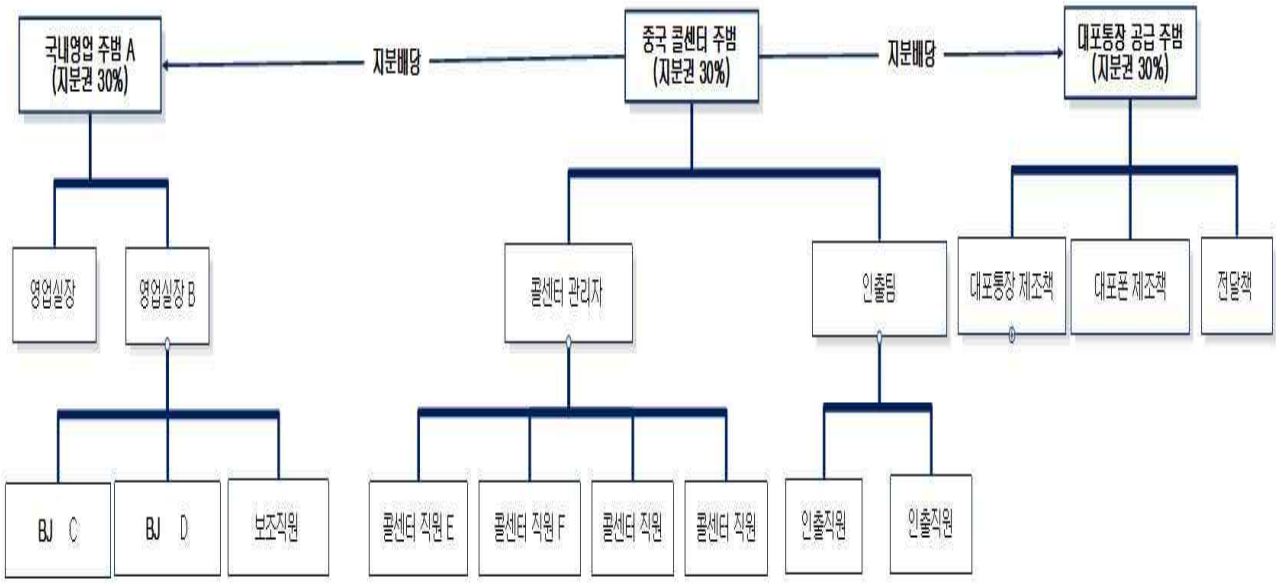
- 사설선물사이트 이용자들은 그 실질이 ‘인터넷 도박’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투자수익을 얻으려 거래에 빠져드는 등 사행성 조장의 정도가 심하므로 사이트 자체를 차단할 필요

☞ **‘19. 6. 28.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조치 의뢰 필**

별첨 1

피고인별 역할 및 처분결과

순번	피고인	피고인들의 역할 및 공소사실 요지	처분결과
1	A	지분권자로서 국내 영업 총괄 - 공모하여 '15. 9. 18.~'19. 3. 27. 사설선물사이트를 운영, 회원들로부터 약 1,854억 원을 입금받아 해당금원을 걸고 선물거래를 하게 함	구속기소 ('19.4.15.)
2	B	국내 영업 담당, BJ들 관리 - 공모하여 '15. 9. 18.~'19. 3. 27. 사설선물사이트를 운영, 회원들로부터 약 1,854억 원을 입금받아 해당금원을 걸고 선물거래를 하게 함	구속기소 ('19.4.15.)
3	C	BJ로서 회원유치 담당 - 공모하여 '15. 9. 18.~'19. 3. 27. 사설선물사이트를 운영, 회원들로부터 약 1,854억 원을 입금받아 해당금원을 걸고 선물거래를 하게 함	구속기소 ('19.4.15.)
4	D	BJ로서 회원유치 담당 - 공모하여 '16. 5. 18.~'19. 5. 14. 사설선물사이트를 운영, 회원들로부터 약 1,723억 원을 입금받아 해당금원을 걸고 선물거래를 하게 함	구속기소 ('19.5.31.)
5	E	콜센터 직원으로서 회원관리 및 민원 상담 - 공모하여 '16. 5.~'19. 6. 사설선물사이트를 운영, 회원들로부터 약 1,726억 원을 입금받아 해당금원을 걸고 선물거래를 하게 함	구속기소 ('19.6.20.)
6	F	콜센터 직원으로서 회원관리 및 민원 상담 - 공모하여 '16. 5.~'19. 6. 사설선물사이트를 운영, 회원들로부터 약 1,726억 원을 입금받아 해당금원을 걸고 선물거래를 하게 함	구속기소 ('19.6.20.)

별첨 2

사설 선물사이트 조직도